北 "核시설 폐쇄 뒤 IAEA 복귀"

김계관 "6차 6자회담서 향후조치 표명"

폐쇄대상에 기존 核 포함 여부 쟁점될 듯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핵시설 폐쇄 조치를 취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계관 부상은 제6차 6자회담 첫째날 회의에서 북한의 향후 조치를 언급하면서 '핵시설을 폐쇄한 뒤 IAEA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감시단의 입북이 이뤄지고 그에 맞춰 중유 5만t이 북측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북한의 IAEA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문제가 19일 재무부의 발표를 계기로 해결된데 이어 북측이 핵시설 폐쇄 후 IAEA 복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비핵화 일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지난 13~14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IAEA 조기 복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14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측과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면서 "북한은 IAEA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IAEA 탈퇴를 선언했다가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했으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파문으로 제2차 핵위기가 불거진 후인 2003년 IAEA 사찰관을 추방함으로써 IAEA와의 관계를 다시 단절했다.

그러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면서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핵비확산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북한이 IAEA 복귀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 1조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을 손에 쥐게 된 것을 바탕으로 '2·13합의'에 따른 60일 내 초기조치의 이행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복귀 대상과 시기다. 일단 시기가 '핵시설을 폐쇄한 뒤'로 어느 정도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폐쇄 시기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60일 이내인 4월 14일 이전에 해당한다.

복귀 대상은 9·19 공동성명에 나온 IAEA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이 아니라 회원국으로 복귀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지난 13~14일 방북 직후 "북측과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면서 "북한은 IAEA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재가입한다면 거의 13년 만에 IAEA로 돌아오는 것이다. /연합뉴스

韓 성매매특별법, 美 '풍선효과'

원정 성매매 급증…2005년 한국인 54명에 피난처

국회조사단, 법 개정 검토

지난 2004년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원정 성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이후 지난 2005년까지 미행정당국이 피난처(shelter)를 제공한 외국인은 25개국 1천300명에 달하며, 2005년의 경우 피난처를 제공받은 230명 중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5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발효 이후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는데 지난 2005년 한국인들이 급증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면서 "이처럼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여성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조사중인 국회조사단의 윤원호 단장(열린우리당)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내 한국 여성 성매매 실상에 대한 교민들의 느낌이 동·서부 지역간에 큰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 미국으로의 성매매 여성 대거 유입을 초래했는지, 즉 '풍선 효과'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어 "해외 성매매 알선범들에게 여권 압수,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귀국하는 대로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틀림없는 사실"

日 무라야마 전 총리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옛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은 틀림없는 일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19일 지적했다.

지난 1995년 일제의 침략전쟁을 포괄적으로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군이 개입했는지 "논쟁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며 "일본군이 위안소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그래서 정부는 사과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도 도덕적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 결과 배상작업을 시작했고 (위안부에게 보상하기 위한 아시아여성) 기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중유 맡아 줄테니 불능화 속도 높여라"

한·미, 北에 '중유예치제' 제안

북핵 6자회담에 참가중인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핵시설 폐쇄 이후 단계인 신고와 불능화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중유예치제도'를 제안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중유예치제도는 북한측의 중유저장능력을 감안할 때 폐쇄 이상의 조치를 취해 중유를 제공받더라도 자체 사정상 5만t 이상의 중유를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폐쇄 이후 단계인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제공할 에너지에 포함되는 중유는 국제원유시장에서 구매한 뒤 북한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이 신뢰할 만한 저장시설에 예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은 가급적 핵폐기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60일내 이행조치'인 폐쇄에 이어 불능화 조치를 곧바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핵시설 신고도 불능화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에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한 소식통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핵폐기 마일스톤(이정표)은 북한이 많은 의무를 이행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폐쇄는 물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지원 규모도 늘어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아프간 미 대사관 호송차량 폭탄 테러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시내 간선도로에서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관의 호송차량 행렬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미군 및 보안요원들이 부서진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장면. /AP=연합뉴스

러시아 광산 폭발 최소 75명 사망

러시아 시베리아 중서부의 케메로보주(州)에 있는 '울야노프스카야' 광산에서 19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한 75명이 사망했다고 케메로보주 공보실이 밝혔다.

사고 당시 광산에는 186명의 광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88명의 광부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사고 당시 광산에서 작업중이던 광부는 200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케메로보 주당국은 갱도 안에 메탄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비상대책부 장관에게 사고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지시했으며, 아만 툴레예프 케메로보주지사, 아나톨리 크바쉬닌 시베리아 대통령 전권대표 등이 현지를 찾아가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울야노프스카야로이터=연합뉴스

미 특수부대원 스마트 군복 입는다

맥박·온도·호흡 등 자동측정

첨단기술박람회 '세빗' 공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입기만 하면 맥박과 온도, 호흡 등이 자동 측정되는 스마트 섬유 군복을 곧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제퍼사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첨단 기술 박람회 '세빗(CeBIT)'에서 공개한 이 섬유는 피부에 닿으면 입은 사람의 심장 박동과 피부 온도, 자세, 활동량 및 호흡 수를 자동 측정하게 되는데 군인이 입으면 전투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운동 선수가 입으면 훈련에 제대로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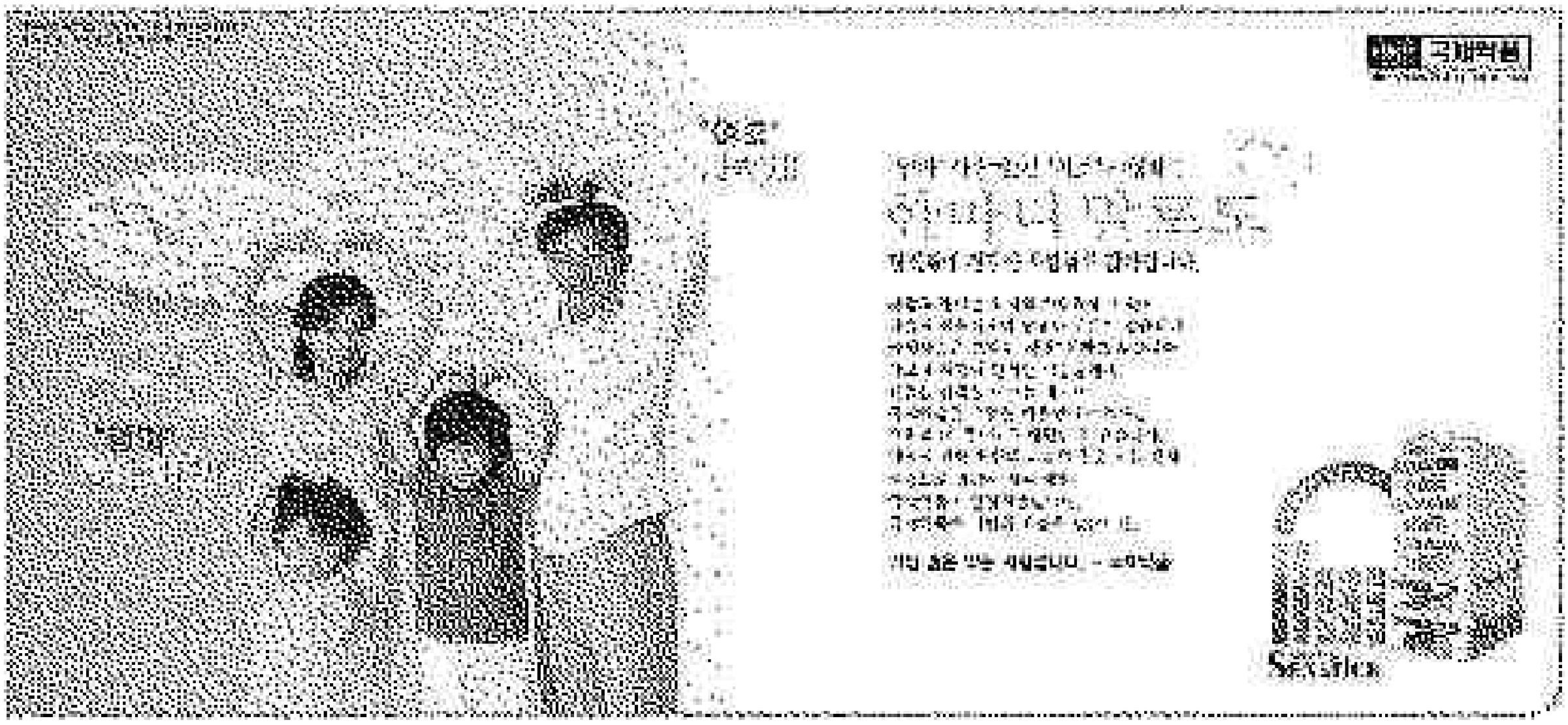
바이오-하네스의 경우 1주일분까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환자가 이를 착용하면 의사들은 새로운 약물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제퍼사가 출품한 제품은 가슴에 두르는 '바이오-하네스'와 신발 안창으로 사용되는 '슈 포드' 두 가지인데 이들은 센서를 섬유 형태로 직조한 특허 섬유로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신약' 70% 이상 자연물질에서 개발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70% 이상이 자연에서 얻은 물질이 주성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질병치료 물질을 시험관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신약을 개발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데이비드 뉴먼 박사는 1940년대 이후에 나온 모든 항암제의 약 50%는 천연물질 자체이거나 또는 천연물질에서 직접 추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연물질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약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버드나무에서 얻은 것이다. /시카고로이터=연합뉴스